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1 | JULY-AUGUST 202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7-8월호 / 통권 301호

발행일 2022년 7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01 | JULY-AUGUST 2022

Editor's Note 4

함께 읽는 성경 6 기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News & Views 11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전례와 생활 12 미사 바로 알기 (9) - 영성체를 위한 준비

1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0 경이로움의 재발견

24 순교복자 이도기 바오로

신앙과 삶 28 일용할 양식

듣다 읽다 보다 30 고전 음악을 듣다

3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0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4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_ 7월

60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_ 8월



THE COVER

서울 당고개 성지 정원의 샘



예전과는 달리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김없이 여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은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랗게 떨어지는” 치자꽃 향기를 들고 7월이 온다고 했는데요. 「가톨릭직장인」 애독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해인 수녀님의 시를 인용한 김에 여름에 관한 수녀님의 또 다른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덥다고/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차라리 땀을 많이 흘리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 일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해 아래 피어나는/ 삶의 기쁨 속에 // 여름을 더욱 사랑하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이해인 - 여름 전문)

더운 여름에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시를 읽다가 문득 몇 년 전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여름 징역살이”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C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부당한 증오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 증오를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드러내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톨릭직장인」 애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여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과 평화 속에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신영복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기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1. 기도란 무엇인가?

⋮

사무엘기 하권 7장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면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도를 신공(神功)이라고 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공양(供養)이나 돈(佛供)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란 하느님과 인간의 마음을 들어올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어원은 사무엘기 하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 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2사무 7,27).” 또한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1열왕 8,28).” 처럼 중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류는 최초부터 종교를 가졌듯이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보다 뛰어난 존재, 즉 신에게 기도를 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이며 본질에 속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순간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절대자에게 매달리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어려움에 청하면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절대자에게 매달리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2. 구약성서가 말하는 기도는?

⋮

탈출기 33장을 읽어보세요

의 기도에는 원시 종교에서부터 벌써 제물 봉헌, 청원, 저주,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전구, 감사 등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학적으로 볼 때 기도는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여 절대자에게 자신을 여는 인격적인 소통 행위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실현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미래’에 가서 완성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 성조들과 맺은 하느님의 계약을 어겼으므로 벌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회개를 권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뒤부터는 사제들이 기도를 주관하면서 제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것은 예절이나 제물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느님은 실제 생활에서 정의를 실행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바치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항상 기도로 하느님의 뜻을 물었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풀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우뚝 선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탈출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선 모세는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세 가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과거에 하느님이 인도해 내신 백성이니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둘째는 현재는 불

가톨릭 직장인 9

격적인 존재인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과의 친밀성을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기도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최대 관심사는 한마디로 “하느님 나라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느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느님 나라는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그분이 인간의 역사 안에 직접 참여하심으로써 가능합니다. 결국,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이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고 때로는 산 위에서 혼자서(마태 14,23), 때로는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에 외딴곳(루카 9,18)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고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필리 2,5).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새로 입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필리 3,10). 우리는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예속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모두 다 절대적으로 얻게 되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깊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 아버지는 만사를 선하게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세상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2022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2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리기간: 4월 18일-11월 11일, 총 30주,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참고피정: 11월 12일(토)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세례성사: 11월 20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문의전화: 02-727-2078

교우회명	국회	서대문구청	시립은평병원	제주항공	SC은행	총
인원	3	1	3	2	2	11명

미사 바로 알기 (9) - 영성체를 위한 준비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성찬의 전례의 절정인 성체와 성혈의 축성 이후에 감사기도의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봉헌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는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전구가 이어집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공동체가 영성체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사랑의 교회를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들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침 영광송’을 바치면, 신자들은 우렁차게 ‘아멘’을 외치며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감사기도가 마무리되고,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성체 예식의 구성

영성체 예식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기 위해 올바른 준비를 하고 성체를 받아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그에 맞갖은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과의 일치를 위해 부당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일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성체 예식은 크게 ‘준비예식’과 ‘본 영성체 예식’, 그리고 ‘감사예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로마 전례에서는 ‘본 영성체 예식’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기에 앞서 ‘주님의 기도’, ‘평화 예식’, ‘빵을 쪼개는 예식’과 ‘성체와 성혈의 혼합 예식’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로 영성체 예식이 시작됩니다. 감사기도와 영성체 사이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성령 청원 기도에 담겨 있는 청원과 전구를 요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성체로 미리 맛보게 될 천국 잔치집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770항).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성찬의 빵이기도 한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거룩한 예물을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평화”를 간청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1항 참조). 이렇게 용서를 청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가 합당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이전에는 주님의 기도를 사제 혼자 바쳤지만, 공의회 이후에는 함께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자들이 미사 전례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부분입니다. 함께 한목소리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신앙인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빵을 청하고 그 빵을 받아 모시기 위해 형제들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화 예식

예수님께서는 수난당하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다음 직접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며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요한 20,19-23 참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에 가져다주신 구원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성찬례 안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 후 평화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교회와 온 인류 가족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성체를 모시기 전에 신자들 간의 친교와 사랑을 드러냅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2항 참조).

초기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고 신자들의 기도를 한 다음에 평화를 기원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동방 교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에 따라 성찬 전례를 시작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는 이어지는 봉헌 예식부터 영성체에 이르는 성찬 전례 전체가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거행해야 하는 하나의 전례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 로마 전례는 5세기경부터 영성체 직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고, 점차 순서가 조정되어 현재에는 주님의 기도와 빵을 쪼개는 예식 사이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영성체 준비예식 전체 안에 ‘교회의 일치’와 ‘형제들 간의 화해’를 요청하는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빵 쪼갬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 신자들이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하는 동안 사제는 성반 위에서 축성된 빵을 쪼갬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신 행위로, 우리는 비록 여럿이지만 쪼개진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작은 조각으로 쪼개야 했던 초세기에는 빵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실제로 필요했지만, 12세기에 와서 성체로 축성하기 위한 제병이 동전 크기로 일반화되자 종전의 빵 나눔은 사라졌습니다. 현대 미사 전례 안에는 사제가 사제용 큰 제병을 쪼개는 형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비록 빵을 쪼개는 형태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도 시대에 그 행위 자체가 미사성제를 지칭했던 만큼, 하나인 빵을 나누어 먹은 모든 사람의 일치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는 형제적 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3항 참조). 비록 빵은 작게 쪼개어질지라도 거룩한 빵의 각 조각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체와 성혈의 혼합

사제는 축성된 빵을 쪼갬 다음 한 조각을 떼어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습니다. 이 예식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살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표현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3항). 성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일치는 그분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성혈에 성체 조각을 섞는 예식은 한때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 주는 표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주교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한 목자 아래 일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교황은 축성한 성체 조각을 본당으로 보내 미사 때 성혈에 섞도록 했습니다. 이 성체 조각을 페르멘툼(fermentum), 곧 ‘누룩’이라고 불렀습니다. 누룩이 빵에 들어가 부풀어 풍성해지듯 교황이 축성한 성체 조각이 미사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영적 풍성함과 일치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그 형태만 남아있지만,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감사의 전례인 성찬례의 중요한 의미는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받습니다. 이 나눔의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기 위한 합당한 준비를 통해 비로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클뤼니의 성 베르나르도 St. Bernard (축일: 8월 20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다가오는 8월 20일은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입니다. 클뤼니(Cluny) 수도원의 베르나르도 성인은 자신이 지냈던 깊고 깊은 성모신심으로 인하여, 당대의 혼탁했던 교회를 쇠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지은 ‘동정 성모께 대한 찬가’ 속에서 마리아의 ‘피앗(Fiat)’이 지냈던 깊은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께 우리 구원의 대가를 주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승낙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슬프게도 지금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짧은 응답으로 인해 회복되고 다시금 생명에로 부름 받을 것입니다.

인자하신 동정녀여,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그의 비참한 후손들이 당신께 이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거하는 조상들, 바로 당신의

조상들도 이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응답에 비참한 이들의 위로와 갇힌 이들의 구속과 저주받은 이들의 해방과 아담의 모든 자손들 곧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동정녀여, 속히 응답하소서. 천사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응답하소서. “말”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소서. 일시적인 “말”을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받으소서.”

이렇게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피앗’이라는 말로 ‘말씀’을 잉태하셨고, 일시적인 ‘말’로 영원한 ‘말씀’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 대한 깊은 신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토회의 개혁을 이뤘고, 혼탁해졌던 중세 베네딕토회 수도승원들의 개혁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이뤄낸 베르나르도 아바스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지냈던 이름의 뜻에서부터 단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도라는 이름은 영어로 표기하면 Bernard(버나드)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독일어로는 Bernhard(베른하르트), 이탈리아어로는 Bernardo(베르나르도), 프랑스어로는 Bernard(베르나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름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어(8~14세기)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Bern이라는 말은 Old Norse björn (“bear”)과 Proto-Germanic *bernuz (more at *berō)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곰”을 의미하고, 후자인 원-게르만어

‘베르누즈’는 “전사”(Warrior)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전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덧붙이는 Hard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도 아는 Hard(힘든, 단단한)이라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단호하게, 굳건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Bernhard라는 이름 속에 담긴 뜻은 “용감하고 굳건한 전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으로 굳건해져서, 그들이 맞서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성모님과 늘 함께 하면서 결국에는 그 어려운 교회 공동체의 쇠신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명을 ‘베르나르도’로 지은 형제님들께서는, 성삼위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헌신의 영성을 깊이 간직한 그런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더 큰 악마의 ‘어두움’이 만연한 이 시대에, 본인들의 믿음과 헌신의 정신을 통해서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소명을 지닌 이들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시대에 악마(마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는데,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곳곳에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숨어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

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관심없이 보아서 그렇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냉담하도록 이끄는 것도 악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께 매달려서 그분께 헌신하는 이들을 반대로 마리아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탈바꿈시켜주십니다. 이 이름을 지닌 분들은 특히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티 없으신 성모성심께 약속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

"성모 마리아여,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오니, 제 영육의 유일한 피신처가 되어주시며,
저에게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전해주소서.
그리하여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명에 전념하게 하시며,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의 보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Cornerstone



An early circular ichthys symbol, created by combining the Greek letters IXΘΥΣ, Ephesus.

Ichthus (물고기, Fish)

ichthus 또는 ichthys는 두 개의 교차하는 호로 이루어진 기호로, 오른쪽 끝 물고기의 윤곽을 닮도록 점점 너머로 뻗어 있다. 초세기부터 그리스도교 전례에서 발견되는 이 상징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물고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 Ichthus(익크투스)는 Jesus Christ, God's Son, Savior(‘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첫 문자로 되어 있다.

Iota (i), Iēsoûs (Ἰησοῦς), "Jesus"

Chi (ch), Khrīstós (Χριστός), "anointed"

Theta (th), Theoû (Θεοῦ), "of God", the genitive singular of Θεός, Theós, "God"

Upsilon (y or u), (h)uiós[10] (Υιός), "Son"

Sigma (s), sōtēr (Σωτήρ), "Savior"

물고기의 묘사는 둥근 모양을 사용하여 모양을 이등분하는 8개의 선으로 IXΘΥΣ를 나타낸다. 이 모양은 보통 여덟 개의 바퀴가 달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둥근 기호는 빵 한 덩어리를 나타낸다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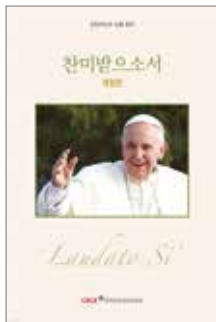
신약성서에서 물고기는 빵과 물고기를 많이 한 기적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당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을 알려 주는 그리스도교와 연결되어 있다. 4세기에 물고기는 성체성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기독교 예술과 문학에서 ichthys의 첫 등장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상징의 사용은 2세기 후반에 대중화되었으며 3세기와 4세기에 널리 퍼졌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상징은 "가장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인은 로마 제국에서 박해에 직면했을 때 이 상징을 통해 교회와 다른 신자를 인식하는 데 사용했다. 성 세바스티안과 프리실리아(Priscilla)의 카타콤에 묘사되었으며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Oracula Sibyllina'라는 제목의 라틴어 텍스트에도 언급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경이로움의 재발견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ic Emergency)’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어의 사용 빈도는 2018년 이후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동의 집 지구에 대한 우리네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지구는 오염되고 병든 곳,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곳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계는 회색빛의 암울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12항)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둡더라도 수많은 꽃과 나무와 구름과 별들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흔적을 통해 세상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

지요. 그렇게 자연이 드러내는 거룩한 신비를 볼 수 있기를 바라시며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85항).

자연의 책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주목하는 주제는 ‘자연의 책’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종이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자체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지요. 하느님께서 이 “소중한 책”을 쓰셨고,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85항).

자연이 하나의 거룩한 책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 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교부들에 의해 이야기된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보나벤투라 성인은 성경과 자연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두 권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며 창조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듣고 찬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러나 여기에 창조된 것의 출현, 위대한 책이 있다. 위를 보라. 아래를 보라. 주목하라. 그리고 읽으라. 당신이 발견하기 원하는 하느님은 결코 잉크로 그 책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당신의 눈앞에 펼쳤다.” 자연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12항)으로 이해하는 전통은 그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연의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지구는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창고가 아니라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세계를 창조주의 흔적이 있는 책으로 본다면, 자연이라는 책에서 하느님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의미와 중요성”(86항)을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

자연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교회 전통이 암시하듯이, 창조 세계는 말없이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자연의 책’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보완하고 풍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고유한 계시와 더불어, 작렬하는 태양과 드리워진 어둠 안에도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있다”(85항)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 세계는 인간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출발점이고, 우주의 근원이자 완성인 창조주의 신비를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그들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그분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산과 바다, 참새와 백합꽃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 안에서 자신을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85항). “세상의 거룩함을 헤아려 보면서 나 자신의 거룩함을”(85항)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미의 노래를!

이처럼 우리가 창조 세계의 경이로운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신비를 보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87항).

회칙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은 ‘피조물의 찬가’를 소개하며 창조주께 드리는 찬미와 흠송을 강조합니다. 성인은 이 찬가에서 태양, 달, 별, 바람, 물, 불, 땅 등을 부르며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는데, 이는 피조물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가 보여주듯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미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데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피조물들이 드러내는 하느님의 풍성한 신비를 느끼고, 그렇게 재발견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자연의 책’을 대하는 우리의 손길은 좀 더 정성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심각한 기후 비상사태 속에서 자연의 신비와 찬미의 영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순진한 낭만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제대로 알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 매력을 느끼고 그 경이로움에 매혹되는 것이 생태적 회심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느님 창조 세계에 대한 경탄과 경이에 열려 있지 못하다면, 새로운 전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부담스러운 의무로만 남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전체는 하느님의 다함없으신 풍요를 보여 줍니다”(86항). 문제의 심각성에만 갇히지 말고, 하느님께서 창조하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경이로움’에 감동해서 우리네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었으니 해야 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신비에 매혹되어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생태적 돌봄’이면 참 좋겠습니다. 무미건조한 세상에 ‘감탄사’와 ‘찬미의 노래’가 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순교복자 이도기 바오로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이번에 소개할 순교자는 복자 이도기(李道起, 1743-1798) 바오로입니다.

한국교회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797년 충청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정사(丁巳)박해의 여파로 1년여간의 옥살이 끝에 1798년 매를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순교록이 『정산일기』라는 한글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기록은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오기(1836년) 훨씬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블뤼 주교는 1855년 2월 22일 파리 본부로 서한을 보내면서 이도기 바오로의 순교록인 『정산일기』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보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쓴 정산일기(定山日記)에 대한 소개입니다.

“존경하옵 신부님, 정련된 다이아몬드는 세월이 흘러도 그 광채를 잃지 않는데,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입국했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보석들 중의 하나[정산일기]가 마침

제 수중에 들어와, 저는 그것이 조선 천주교회를 장식하리라 믿어 신부님께 보냅니다. 이것은 1798년에 순교한 이 바오로 순교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번역입니다. ... 저의 번역 솜씨가 보잘 것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문장을 다듬을 시간이 없고, 성무를 집행하는 동안 작성한 글이니 신부님께서 이 안에서 사실들을 헤아려 찾아주십시오.”(다블뤼 주교가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정산일기를 토대로 이도기 바오로의 순교록을 요약해 봅니다.

이도기 바오로는 충청도 청양(靑陽) 출신입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었지만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천주교에 입교한 후에 복음 전교를 하기 위해 재산을 점점 소모하였고, 그는 정산(定山) 고을로 가서 웅기점을 하며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주변이 모두 외교인이었지만 천주교를 권면하여 이웃들을 교화시켰습니다. 그때는 아직 1801년 박

해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도기의 웅기점 마을은 교우촌의 가장 초기형태였을 것입니다. 1797년 정산 지역의 현감이 새로 부임하자, 이웃 중 하나가 바오로를 천주교의 괴수로 고발하려 하였습니다. 부인은 피하라고 권했지만, 이도기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자신이 도망가면 이웃의 믿음에 해가 되며, 국가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고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예고한 대로 관원이 찾아와서 십자고상과 천주교 서책을 압수하며 이도기를 체포하였습니다. 관아로 끌려가자마자 신문이 이어졌고, 신자를 고발하지 않자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는 신문 중에 천주교의 도리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천주 계신 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후에 군신(君臣)이 있습니다. 천주는 천지의 임금이요, 만물의 주재요, 만민의 대부모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근원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이며...”

그곳에서는 마침 장(場)이 서는 날이 다가와서, 군중에게 옥을 보이기 위해 이도기를 장터(치성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저놈들이 천주학에 종사하니 역적과 다름이 없다.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박대하고 오륜을 잊으니 온 장(場)에 회시하고 쳐죽여라.” 관

에서는 다시 이도기를 옥에 가두면서, 죄를 자백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옥사쟁이는 천주를 배반하지 않으면 엄형에 처할 것이고, 배교할 경우 시장에서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회유하였습니다.

또 다른 장날, 잔칫상을 차려 놓고 두 교우에게 배교를 강요했지만, 이도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천주는 조물(造物)의 참주님이십니다. 생사(生死)의 큰 권한이 있으시니 어찌 가히 배반하리까?” 또 다른 신자 한 명도 “어찌 관원이 되시어 백성으로 하여금 참부모를 무함하고 욕하라 하십니까? 우리 백성은 부모 욕하는 법이 없나이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관원은 화를 내면서 천주교 서책과 성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뇌성이 진동하고 큰 바람이 일어나 장터를 어지럽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형벌하지 말고 놓아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옥에서 계속해서 심문을 받으며 치도곤을 맞았습니다. 사람마다 이도기를 바라보며 장독(杖毒)으로 죽겠다고 걱정하며 말했지만, 바오로는 태연하게 “매로 죽나 장독(杖毒)으로 죽나 다 주님의 명이니 감사하지 않겠소?” 하며 대답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되어 다시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자백(배교)을 하면 이미 받은 형벌은 다 치료해 줄 것어요, 나중에는 면장을 하게 하겠다.” “비록 정산 한 읍의 것을 다 주어도 결단코 주를 배반하고 살기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은 이도기 바오로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정산 고을을 다 준다고 해도 자신이 믿는 천주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옥사쟁이 중에는 바오로가 도망치도록 일부러 문을 열어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도기는 “나를 가둔 이는 관원이요 자네 무리가 아니니, 관가의 명령이 있으면 나갈 수 있으리라.”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도기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내가 찾아와도 물건만 두고 가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고문은 거세어졌습니다. 정강이를 때리는 고문을 하면서 더 큰 고문을 예고했습니다. 거세고 긴 고문을 견디어 내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찾아오며 필요한 경문(기도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에도 옥중에서 서책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기도문과 침례표를 감옥에서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도기는 아내에게 이제 기도문과 침례표가 필요하지 않고, 얼마 후에는 음식도 필요하지 않으니 가지고 오지 말라고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를

짐작했던 것입니다.

1798년(음력) 6월 초 10일 장터에서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교를 강요했지만, 끝내 거부하고 관원들은 그날 작정을 하고 매질하며, 쓰러진 이도기를 발로 차며, 그 아내마저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거의 주검이 되어서 겨우 옥에 들어갔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2일 저녁에 관원 중의 대장이 ‘자신은 차마 죽음을 보지 못하겠으니, 너희들이 가서 맥을 짚어보고 죽지 않았거든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관원들이 무수히 매질하였고 이내 숨이 끊어졌지만, 그들은 살이 뚫어지고 뼈가 부러지도록 계속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이튿날 옥졸이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바오로의 붉은 피는 마치 살아 있는 사람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1798년 6월 12일(양력 7월 24일) 순교하는 날, 옥사쟁이가 증언합니다. “과히 서러워 말라. 그날 밤에 시체에 크게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을 또 다른 교우도 얻어본 이 있느니라”

그 매를 맞았던 곳은 정산(定山) 고을 치성장터입니다. 그의 순교록은 한글 필사본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다블뤼 주교의 번역보다는 내용이 조금 적습니다. 다블뤼 주교가 입수

한 내용이 현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도기는 이른바 정사박해(1797)의 순교자 중에 한 명으로, 이 지역적 박해에서 우리가 그 이름과 순교 행적을 알 수 있는 이는 이도기, 박취득, 원시보, 정산필, 방 프란치스코, 배관겸, 인언민, 이보현 뿐입니다. 이들 모두는 순교복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무명 순교자로만 남았으며, 그 순교 행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는 바로 『정산일기』의 주인공, 이도기 바오로입니다.

『사학정의』에 보면 이도기에게서 천주교를 배워서 믿다가 배교하여 유배간 이들이 7명 이상 나옵니다. 이를 통해 이도기는 학식이 뛰어난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 신앙의 깊이와 전교의 열정이 대단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❷

묵상

조선시대 웅기장이 일은 매우 힘든 일에 속했습니다. 좋은 흙을 수없이 거르고 정제하여 빚어서 굽고, 그것을 내다 팔아야 하며, 자주 거처를 옮기며 좋은 흙을 골라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웅기장이로 변모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도기 바오로 복자를 기억합니다.



일용할 양식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김 야고보는 지난 20여 년간 강단에 섬으로써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50대 후반의 프리랜서 강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출강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었고 40대 젊은 강사들과의 경쟁에서 정신적, 체력적으로 밀리다 보니 강사로 수입 또한 급감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막상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엄두는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거리에서 상가 분양광고 전단지 받아들이는 문득 이참에 임대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야고보의 아내 모니카는 20년 넘게 본당에서 미사반주와 성령기도회 봉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신심 깊은 전업주부이다. 며칠 전 야고보가 모니카에게 비정규직 강사로서의 자신의 입지와 불투명한 미래의 소득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상가 분양사무

실과 모델하우스에 한 번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더니 모니카는 정색을 하며 “여보, 성령기도회 담당 신부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은 반드시 해결해준다고 하셨어!”라며 일고의 여지도 없이 동행을 거절했다. 나름 고심 끝에 어렵게 꺼낸 얘기를 아내로부터 대번에 거절당한 야고보는 남편의 어려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아내가 야속하기도 하고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야고보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Question

가정경제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 앞에서 나는 주님께 의탁하기 보다는 하느님 아닌 것(점, 미신, 로또 등)에 의지한 적은 없는가를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잠언서 30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의 올바른 경제관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삶에 필요한 양식과, 물질적이고 영적인 ‘합당한’ 모든 재화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는 산상 설교에서 우리 아버지의 섭리에 협력하는 이 자녀다운 신뢰를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의탁하는 일이다.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0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베르디 -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베르디의 탈출구 ‘베르디-바리톤’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베르디의 ‘레퀴엠’도 어느 레퀴엠 못지않게 정말 훌륭하지만, 베르디라고 하면 먼저 오페라가 떠오를 정도로 음악사상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라는데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이탈리아인이거나 제2의 애국가로 기립하여 듣거나 따라 부르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단서로 하여 먼저 그 자체가 한 편의 ‘인간 승리의 드라마’인 베르디의 생애를 보자.

1832년 18세 때, 그는 밀라노 음악원 입학시험에서 낙방하였다. 이유는 표면적으로 작곡실력도 허술하다고 평가되었고, 나이도 입학제한 연령보다 많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외국인’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1813년 베르디가 탄생한 론콜레(Le Roncole)는 파르마(Parma)현의 붓세토(Busseto) 근교의 작은 마을로, 당시 프랑스 제1제국에 속했었고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방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나폴레옹 몰락 후 오스트리아에 합병되었다. 밀라노 음악원에 고배를 마신 베르디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스칼라 극장에서 갓 은퇴한 동향출신의 작곡가 라비냐(Vincenzo Lavigna)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며 작곡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대한 감각을 홀로 터득해 나갔다. 그런데 더더욱 그에게 견디기 힘든 인간적인 고통이 닥쳐온다. 1832년 고향 붓세토의 음악교사로 귀향하여 신혼살림을 살던 중 1838년에는 딸이 죽었고, 다시 밀라노로 이주한 1839년에는 아들마저 죽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840년에는 아내(Margherita Barezzi)마저도 26세의 나이로 뇌막염에 걸려 세상을 뜨고 말았다. 게다가 스칼라 극장의 흥행사 메렐리(Bartolomeo Merelli)가 청탁하여 무대에 올린 작품들 중 첫 작품 ‘오베르토(Oberto)’가 약간 성공하지만, ‘하루만의 임금님(Un giorno di



regno)’은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무대에서 하루만에 내려졌다. 베르디는 삶의 의욕을 잃고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완전한 ‘루저’였던 그의 가능성을 끝까지 꿰뚫어 보고 있던 흥행사 메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부코’를 의뢰하였다. ‘나부코’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탈리아 전역에 베르디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 후 베르디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만약 그가 베르디에게 새로운 오페라 ‘나부코’의 대본을 건네주고 작곡을 의뢰하지 않았더라면, 이탈리아 오페라의 역사는 완전히 달리 쓰여졌을 것이다. 1901년 87세까지 살았던 베르디는 삶의 마지막까지도 정열적으로 작곡을 하여, 74세 때 ‘오텔로(Otello)’, 이미 80대의 노인이었을 때도 ‘팔스타프(Falstaff)’를 내놓는다. 그 후 그는 1895년 은퇴한 음악가를 위해 밀라노에 흔히 ‘카사 베르디(Casa di Riposo per Musicisti)’라고 불리는 양노원과 붓세토 근교에 병원을 희사하는 등 봉사의 삶을 살았고, 1897년 사랑하는 스트레포니(Giuseppina Strepponi)가 사망한 후, 1898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준 하느님에게 ‘4개의 성스러운 노래(Quattro pezzi sacri)’를 바쳤다. 원래 1886-97년 틈틈이 작곡하였던 ‘아베 마리아(Ave Maria)’, ‘서 계신 어머니 Stabat Mater’, ‘단테의 천국에 따른 성모찬가(Laudi alla Vergine Maria-Canto XXXIII from Dante's Paradiso)’, ‘테 데움(Te Deum)’의 4편을 모은 작품이었다. 1901년 1월 21일 오후, 자기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르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원래 온 국민의 추도 속에 밀라노 공동묘지에 묻혔으나, 한 달 뒤 자신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한 ‘카사 베르디’로 이장되었다. 그의 이장 장례식 때에는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820명의 합창단이 부

Verdi: Nabucco

Piero Cappuccilli (Nabucco), Plácido Domingo (Ismaele), Evgeny Nesterenko (Zaccaria), Ghena Dimitrova (Abigaille), Lucia Valentini Terrani (Fenena), Kurt Rydl (Gran Sacerdote), Volker Horn (Abdallo), Lucia Popp (Anna)
Chorus & Orchestra of German Opera Berlin, Giuseppe Sinopoli

Release Date: 7th Nov 1983
Catalogue No: 4105122
Label: DG
Length: 2 hours 3 minutes



Verdi: La Traviata

Ileana Cotrubas (Violetta Valery), Stefania Malagù (Flora Bervoix), Helena Jungwirth (Annina), Plácido Domingo (Alfredo Germont), Sherrill Milnes (Giorgio Germont), Walter Gullino (Gastone), Giovanni Foiani (Dottore Grenvil), Bruno Grella (Barone Douphol), Alfredo Giacomotti (Marchese d'Obigny)

Release Date: 4th Nov 2016 (Original Release 1977)
Catalogue No: 4796706
Label: DG
Length: 1 hour 49 minutes



르는 오페라 ‘나부코’의 제3막 제2장 유프라테스 강둑에서 부르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Va, pensiero, sull'ali dorate 가거라, 내 마음아, 황금의 날개를 타고)’이 밀라노 대성당 앞 두오모 광장과 밀라노의 모든 거리에 울려 퍼졌으며, 광장과 거리에 운집한 삼 만 여명의 시민들도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다. 잃어버린 조국과 요단강,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합창은 당시 외세침략에 분열되었던 이탈리아인의 마음을 움직여 거의 이탈리아 국가(國歌)가 되었다.

Va, pensiero, sull'ali dorate; 가거라, 내 마음아, 황금의 날개를 타고;

Va, ti posa sui clivi, sui colli, 가거라, 나무 가득한 언덕 위로,

Ove olezzano tepide e molli 그곳은 훈훈하고 다정한 바람이 날리는

L'aure dolci del suolo natal! 향기로운 나의 옛 고향!

Del Giordano le rive saluta, 요단강의 푸르른 언덕과

Di Sionne le torri atterrate. 시온성이 반겨주는 곳,

Oh, mia patria sì bella e perduta! 오 그 아름다운 내 조국을 빼앗겨버렸네!

Oh, membranza sì cara e fatal! 오 추억은 가슴속에 사라져버렸네!

Arpa d'or dei fatidici vati, 우리 선지자들의 황금의 하프,

Perché muta dal salice pendì? 지금은 어찌하여 버드나무에 걸려만 있는가?

Le memorie nel petto raccendi, 내 심장의 추억을 새로이 하고

Ci favella del tempo che fu! 지나간 옛 일을 말해주오!

O simile di Solima ai fati 마치 예루살렘의 운명과 같이

Traggi un suono di crudo lamento, 처절한 고통으로 비가(悲歌)를 부르거나

O t'ispiri il Signore un concerto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Che ne infonda al patire virtù! 우리의 고통을 인내하리라!

베르디에게는 히브리 노예처럼 평생 자신을 얹매었던 두 개의 사슬이 있었다. 첫째는 아버지 에 대한 죄의식이었다. 아버지 카를로(Carlo Giuseppe Verdi, 1785-1867)는 교회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오스테리아 베키아(Osteria Vecchia, 오래된 주막집이란 뜻)’라는 여인숙 겸 잡화상을 운영하였고, 루이자(Luigia Uttini, 1787-1851)와 결혼 8년 만에 얻은 외아들이 베르디였다. 온갖 물건을 파는 만물상에 술을 사러온 악사들로부터 귀동냥으로 음악을 익혀 주변에 천재로 소문이 나자, 부셋토의 부자 상인 안토니오 바레치(Antonio Barezzi, 1787-1867)가 후원자로 나섰고, 아예 바레치의 집으로 옮겨 기거하며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후에는 그의 딸 마르게리타(Margherita, 1816-1840)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베르디에게 후

원자 바레치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럴수록 생부를 버렸다는 죄의식도 평생 간직하게 되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르디는 아내와 두 자녀를 모두 잃고 난 후, 당시 무명의 작곡가였던 베르디의 오페라에 기꺼이 출연해 주었던 당대의 명소프라노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사랑에 빠져 동거하게 되었고, 또다시 장인 바레치에 대한 죄의식도 싹트게 되었다. 2년 연하의 스트레포니는 당시 유명한 프리마돈나로, 베르디의 출세작 ‘나부코’의 ‘아비가일레’ 역을 맡아 열창했던 것도 그녀였지만, 독신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며 유부남인 테너 가수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두어 당시 엄격한 가톨릭 이탈리아 사회로부터 행실 나쁜 여인으로 낙인찍혔었다. ‘빚나간 여인’이라는 뜻의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의 비극적 사랑을 통해, 사실은 사회의 이중적 도덕관을 비난한 베르디는 1853년 초연 당시 스트레포니의 손을 잡고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여 부세토의 교외에 있는 산타가타(Sant'Agata) 저택에서 동거하던 두 사람은 1859년 8월 29일 함께 여행하는 도중 제네바에 머물게 되자 부근의 콜론-수-살레브(Collonges-sous-Salève)마을의 생 마르탱(Saint Martin) 성당에서 아무 하객도 없이 남몰래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동거한지 11년만이었다. 이렇게 베르디를 평생 속박하던 ‘두명의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은 이른바 ‘베르디-바리톤’을 탄생시켰다.

보통 오페라의 주인공 테너와 소프라노 사이에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바리톤, 예를 들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나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방해가 되는 역할로 등장하는 바리톤에게 깊은 애정을 쏟아 부었다. 베르디가 초기의 애국적 오페라를 벗어나 점차 중기의 ‘심리적’ 오페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고뇌를 그려 삶과 예술을 묶는 ‘바리톤’은 진가를 발휘한다. 원래 고음(테너)과 저음(베이스)만 있었던 성악에 약방의 감초처럼 새로이 등장하여 보조적 역할을 하던 바리톤에게 인간 삶을 현미경과 같이 깊은 내면

Verdi: Requiem and Quattro Pezzi Sacri
Joan Sutherland (soprano), Marilyn Horne (mezzo-soprano), Luciano Pavarotti (tenor) & Martti Talvela (bass)
Wiener Staatsopernchor, Wiener Philharmoniker, Chicago Symphony Chorus & Orchestra, Sir Georg Solti

Release Date: 11th Sep 2006
Catalogue No: 4757735
Label: Decca
Series: Originals
Length: 2 hours 1 minute



으로부터 토로하게 하였다. ‘쓰리 테너’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플라시도 도밍고’가 나이가 지긋한 만년에 음역을 낮추어 베르디-바리톤에 도전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베르디는 르네상스 이탈리아가 만든 멋진 종합 예술 오페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로 말미암아 푸치니와 같은 후배들이 민초들의 삶을 현미경과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삶과 예술을 하나로 묶는 베르디의 방식은 20세기 들어 루키노 비스콘티, 로베르토 로셀리니, 페데리코 펠리니와 같은 이탈리아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들로 이어진다. 밀라노 변두리였던 ‘카사 베르디’는 이제는 밀라노 중심부에서 가깝다. 그 앞 로터리에 베르디의 동상이 있고, 전형적인 이탈리아 격자형 건물 1층 한편을 차지한 베르디와 스트레포니의 무덤을 두고 안뜰의 맞은 편 벤치에 평화로이 앉아 있노라면 저절로 베르디-바리톤이 귀에 울려오는 듯하다. 메트로를 타려고 나오는 길에 일요일 시장이 서서 할아버지가 신문지에 싸주는 딱딱한 치즈 한덩이를 샀다. ‘베르디-바리톤’의 맛이 풍겼다.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이שראל 평원의 주요순례지 - 타보르 산, 벤산

심연선 소화데레사_이שראל 전문 여행 가이드

갈릴래아 호수 주변지역에서 돌레를 잘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가면 늘 시야에 들어 오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완만한 언덕과 골짜기로 되어있는 파도 모양의 갈릴래아 산지 지역에 도드라지게 동그란 봉분처럼 올라와 있는 그 산의 이름은 타보르 산입니다. 성경에 아름답다고 표현되는 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 헤르몬 산, 가르멜 산과 더불어 종종 언급이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은 나자렛에서 약 13km 정도, 갈릴래아 호수가 티베리아스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자렛 추락산에 올라가서 보면 동쪽 방향으로 있는 것이 보이고, 지중해 쪽에 있는 가르멜 산에서도 보입니다. 대표적인 골짜기이자 평야인 이שרא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볼록 올라온 산으로써 높이는 588m 정도 됩니다. 순례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순례하는 주요 순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타보르 산’에서 변모하셨

다고 성서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에는 그곳은 ‘높은 산’이라고 언급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타보르’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높다, 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비잔틴 시대 때부터 교부들의 증언에 따라 이곳을 주님께서 변모하신 장소로 순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보르 산 정상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산 중턱까지 차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승합택시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다른 하나는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도보로는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택시를 타고는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불구불한 포장도로가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데, 이 길은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오실 때 닦여진 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바람의 문’이라는 돌로 지어진 성문을 만나게 되고 그 뒤로 성당까지 이어지는 사이프러스 나무 길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상아색의 성당이 신비하고 거

룩하게 느껴집니다. 택시는 성당입구에서 약 80미터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순례자들을 내려놓고 언제 올 것인지 묻고는 다시 내려갑니다. 주차장에서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 성당은 타보르 산 정상에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성당 뜰 오른쪽에 성물방과 순례자 숙소가 있는데 몬도 엑스 공동체(이탈리아의 중독 치료 공동체)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마르 9,5)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타보르 산 정상에서 머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이 숙소는 시설이 낡아서 불편하지만, 하룻밤 정도 머무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산티아고로 가는 도보 순례 길에 있는 낡은 알베르게 정도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 약사 분들을 모시고 어느 봄날의 순례길에서 하룻밤을 머물러 보았는데, 그때는 호텔에 매





타보르산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성당 외부

우 익숙해있었던 터여서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방에 전화기도 없어서 밤마다 돌아다니며 노크하고 순례 일정 및 전달사항 등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신부님이 그냥 문을 다 열고 한꺼번에 이야기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순례자분들이 문을 다 열고 저는 복도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숙소가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밤새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창문은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할머니 집에서 보았던 담요로 된 이불이 매우 낯설어 몸을 뒤척이며 순례자분들은 잘 주무실까 걱정하며 밤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조심스레 여쭙보니 ‘하룻밤인데 어때요. 생각보다 정말 잘 잤어요.’ 하며 조금 까

칠해 보이는 피부를 펴며 웃으시던 얼굴이 기억납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지 못해도 식사는 할 수 있어서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주로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봉사자들이 운영하다 보니 이탈리아 메뉴입니다. 올리브기름에 구운 닭이나 칠면조 그리고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한 야채샐러드, 토마토 소스 파스타 같은 음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접하기 힘든 이탈리아 사람의 손맛입니다. 수사님을 따라온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이스라엘에서 먹은 음식 중에 무엇이 제일 맛있었냐고 물으니 어느 산에 올라가서 먹은 빨간 국수가 제일 맛있었다고 해서 한참 생각을 했었

습니다. 커피도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온 북은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를 줍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 성당은 당대 성당 건축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명인 건축가 바를루치에 의해 약 100여년 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채대 뒤편으로 황금색 모자이크 성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모세 성인과 엘리야 예언자를 양 옆에 두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예수님과 세 사도들이 그려져 있는데, 어느 유럽 성당처럼 크기와 규모로 순례자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곳에서 변모하셨다는 장

소가 주는 감격이 순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타보르 산에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벤산(beit she'an) 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벤산은 성경에 ‘벳산’ 또는 ‘벳스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와 판관기에 지명으로 여러 번 등장하고, 사무엘기에는 사울왕의 최후와 관련되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요르단 강과 하룻 강이 만나는 곳으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성당 내부



타보르산 순례자 식당

계곡과 이즈르엘 골짜기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는 길목의 도시였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갈 때 이곳에 있는 벤산 국경을 통해 육로로 이동합니다. 기원전 3,000년의 마을 흔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고, 이집트 18~20왕조의 문서에 (기원전 15세기)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에 '스키토폴리스'라는 도시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데카폴리스 지역 가운데 요르단 서편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그것은 로마시대로 이어져 아름답고 큰 로마식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이

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마을 어귀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코끼리 열차로 이동하여 고대도시 발굴터에 입장합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로마 도시 잔해 중에 규모나 상태가 제법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심도로를 아우르는 기둥들과 팔레스티나 땅에 없는 대리석으로 만든 건축 장식, 목욕탕, 상점, 바닥 모자이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시대 때의 벤산은 이곳이 아닌 '텔(고고학 용어- 언덕)' 형태로 남아 로마 도시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벤산은 기원후 363년의 큰 지진으로 한번 무너지고 재건되었으나 749년에 다시 일어난 지진으로 그 역사가 끝이 나게 됩



벤산 전경

니다. 같은 방향으로 누워있는 기둥들을 보면 그때의 참혹함을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로마제국의 총독이 팔레스티나에 파견되었던 때인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로마도시의 유적들은 대부분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제법 큰 도시였던 이곳 벤산의 로마 도시 잔해에서 이곳을 지배했던 로마의 영향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둘러보고 나오면 걷고 서고를 반복하여 목이 마르고 피곤감이 느껴집니다. 가까운 곳에 쇼핑몰이 있는데 그곳 카페에



벤산-로마식 극장



벤산-모자이크

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또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 숨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제품이 발달된 곳이어서 그런지 아이스크림도 맛이 좋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생각합니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에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지배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으로 손꼽히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살아가던 벤산. 그 흔적을 거닐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되새겨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5)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보다 더 유죄이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

최대한 신부_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모든 이가 모든 이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 죄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정신적 심오함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독자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은 이 소설을 통해 새롭게 희망의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시마 장상의 회심의 여정과 유훈으로 남긴 가르침, 알료샤가 스승의 죽음 이후 마침내 다다른 깨달음은 여러 번 읽을수록 감동이 더합니다. 그 감동은 또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걸작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사상이면서 가장 신비하고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모두는 모두의 앞에서 모든 것에 죄인”이며, 나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선언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조시마 장로가 전하고 있는, 젊은 나이에 죽은 자신의 형의 마지막 모습에 담겨있습니다. (제6편 「러시아의 수도사」 2장).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신분의 격차 때문에 자신에게 봉사하는 하인을 보며 그는 자신이 그런 봉사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 봉사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자신이 봉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는 서로에게 봉사해야 한다.’가 죽음 앞에서 조시마 장로의 형이 깨달은 인간의 길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이가 유죄라는 놀라운 사상을 남깁니다.

“어머니, 제 기쁨이신 어머니, 주인과 하인이 사라지지야 않겠지만, 하인들이

제게 해주듯이 저도 제 하인들의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는 모두의 앞에서 모든 것에 죄인이예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예요. (...중략...)

제 혈육이자 사랑이자 기쁨이신 어머니, 참으로 모든 이가 모든 이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 죄인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다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분노를 터뜨리며 살았을까요?” (『카라마조프 형제들』2,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19-20쪽.)

이제 죽음을 앞둔 조시마의 젊은 형은 ‘삶은 즐겁고 기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와 예찬이 그에게서 샘솟습니다. 만물이 하느님의 영광을 밝히고 있음을 이제야 보게 되었음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합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 기쁨이신 어머니, 저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예요. 저 자신이 저들 앞에 죄인이고자 해요. 어머니께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건 제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제가 모든 것 앞에 죄인이라도 모두가 저를 용서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요. 그러니 저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닐까요?” (『카라마조프 형제들』2,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21쪽.)

형의 마지막 모습은 조시마 장로의 기억에 강한 이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 허영과 교만의 유혹에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느님의 선을 추구하는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조시마 장로의 임종 이후 알료샤의 삶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러니 도스토예프스키는 바로 여기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의 근본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레비나스의 철학

‘우리 모두는 모두의 앞에서 모든 것에 죄인’이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제는 감동적이지만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광신적이거나 감상적이거나 텅없는 이상주의라는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작품과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종교적, 윤리적 해석 안에서 이 구절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과 도전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는 근대 이후, 주체성의 철학, 자기 결정성의 윤리, 권리와 평등의 정치철학, 대등한 관점에서만 인간관계를 보는 윤리가 성취한 인권과 도덕의 발전이 마주한 한계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비로소 대면하게 하는 강렬하고 예리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윤리적 갱신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희망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찰한 철학자가 현대 철학의 윤리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 1906-1996)입니다. 후설의 제자이자 하이데거의 철학에도 정통했던 그는 독일을 중심으로 발생한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적 흐름인 현상학을 프랑스 사상계에 소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르트르나 모리스 메를로-퐁티, 그리고 그 이후 데리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그는 전쟁 중 강제 수용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극의 한 근원으로 주체와 존재에만 기초하여 타자에 대한 동일성의 폭력에 무감각했던 근대 이후 철학의 전통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존재론이 아니라 윤리학을 ‘제1철학’으로 인식하며, 타자에 대한 책임을 깊이 성찰하고 체화하는 새로운 철학의 길을 꾸준히 모색합니다. 그의 철학은 인류의 생존이 생태적 재앙과 증오와 혐오로 위태로운 이 절박한 시대에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에는 구약 성서의 정신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무조건적 책임을 발견하라는 그의 정언적 명령은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를 돌보는 것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 선언하는 신명기의 계명들과 닮아있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철학의 시원이 바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사상에 있다고 한 대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출발점은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조금 전 인용해서 당신에게 들려주었던 ‘우리 각자는 모든 이와 모든 것에 대해 모두 앞에서 유죄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렇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장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느낌, 타인을 위한 책임이 감사하다는 느낌, 타자가 항상 ‘당연히’ ‘나’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느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의무에 따르는 ‘나’, 신의 말씀과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 타인의 얼굴 안에서 지시되는 ‘나’에 대한 이 모든 것.” (에마누엘 레비나스/프랑수와 푸아리에, 『레비나스와의 대담』, 김명걸 옮김, 두 번째 테제, 2022, 166-167쪽.)

『전체성과 무한』과 함께 그의 양대 주저로 꼽히며, 그의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철학을 종합하고 있는 명저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러한 사상이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강하게 반향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잠언과도 같은 선언이 사실은 오늘날의 정신적, 윤리적 위기에 절실한 호소라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도스토예프스키를 현대의 상황에서 살아있게 해석하는 탁월한 예이자 동시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이 가진 급진적 사상이 근대문명의 위기가 감출 수 없게 드러난 이때야말로 비로소 제대로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레비나스는 ‘지향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통해 인식을 통해 주체를 탐구하는 고전적 현상학에서 점차 벗어나며, 마침내 ‘근접성’이라는 개념을 더 근원적으로 받아들이며 타자와의 만남에서 무조건적인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결단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전혀 새로운 철학에 도달합니다.

“앎이 아니라 근접성으로 해석된 감성에서 출발하여, 또 언어로 만들어지는 정

보의 순환 배후의 언어에서 접촉과 감성을 찾으려 하면서, 우리는 주체성을 의식과 주체화로 환원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근접성은 타인과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미지’로 용해될 수 없고 주제로 노출될 수도 없다. 주제 속에 자리할 수 없으며 나타날 수 없음 - “접촉”과 강박을 이루는 이 비가시성은, 가까워지는 무엇의 무의미함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를 시간에 연결 짓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하기의 방식과 관계한다. 여기서, 즉 가시성 너머에서는 그것의 기호 속에서 여전히 주체화될 어떤 의미작용도 노출되지 않는다. 다른 아닌 이 초월함이, 더욱이 이 너머의 초월함이 의미작용이다. 의미작용, 다시 말해 타자를-위한-일자의 모순적 전의. 직관의 결함이 아니라 책임의 과잉인, 타자를 위한 일자.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이야말로 그 관계에서의 위험에 해당한다.

모든 자유로운 개입 이전의 책임인, 존재성에 대한 모든 비유를 넘어서 자기-자신은 타자들의 자유를 위한 책임일 것이다. 이웃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유죄성은 나의 피부에 스며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서』, 문성원 옮김, 그린비, 2021, 215-216, 238쪽.)

다른 대담에서 레비나스는 때때로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는 자신의 주저에서 시도하는 사유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중요한 주제는 타인의 얼굴에서 책임을 발견하는 주체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 주체가 자신을 정의하는, 근대철학 이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놀라운 철학적 주장을 만납니다. 인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결단이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상호관계의 철학은 단지 거리를 유지하는 주체끼리의 ‘대화’ (dialogue)가 아니라 ‘섬김’ (diakonia)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극히 성서의 가르침과 지극히 잘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면서, 그리고 순전히 부정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기술하면서 발견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얼굴에 다가

간다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지각의 질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치를 향해 가는 지향성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우리는 타인이 나를 보자마자,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저는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서』에서, 책임이 애당초 타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그의 책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략...)

실제로 책임이란, 마치 윤리적 관계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존재한 것인 양하는 주체성의 단순한 속성이 아닙니다. 주체성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애당초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타인의 근접성 (proximity)은, 타인이 나와 공간적으로 가깝다거나 부모처럼 가깝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한 - 내가 그에게 책임이 있는 한 - 그가 나에게 본질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에서 우리가 대상에 - 그 대상이 무엇이든, 인간 대상이더라도 - 결부된 지향적 관계와 전혀 닮지 않은 구조입니다. 근접성은 이러한 지향성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이 나에게 인식된다는 사실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중략...)

타인과의 유대는 오로지 책임으로만 맺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받아들여 지든 거부되든, 그것을 어떻게 상정해야 할지 알든 모르든,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책임으로 맺어집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주는 것. 인간의 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입니다. 인간 주체성의 구현은 그 영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대화 (dialogue) 이전에 (dia-conie)가 있습니다. 저는 마치 타인과 근접해 있는 중에 - 내가 타인에 대해 형성한 이미지를 넘어서 - 타인의 얼굴이, 타인 안에 표현된 것이 타인을 섬기도록 내게 명령하는 듯이, 사람-사이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공식을 도입합니다. 얼굴이 나에게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 / 필립 네모, 『윤리와 무한』, 김동규 옮김, 도서출판 100, 2020, 109-111쪽.)

이어서 레비나스는 타인이 나에게 갖는 책임은 어디서 발견되는지, 즉 책임과 의무의 상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 말합니다. 이는 근대철학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며, 도스토예프스키가 일찍이 서구의 병으로 통찰한 것이고, 조시마 장로의 입을 통해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는 비합리성이나 광신도도 아니라 근대적 지성의 자기중심주의에서 탈출구를 찾는 절박한 사유의 모색입니다. 레비나스는 자신의 사유에 영감을 준 것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다시 밝히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명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전해줍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탁월한 성찰은, 정의의 요구가 나의 권리에 대한 요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불의를 범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책임을 그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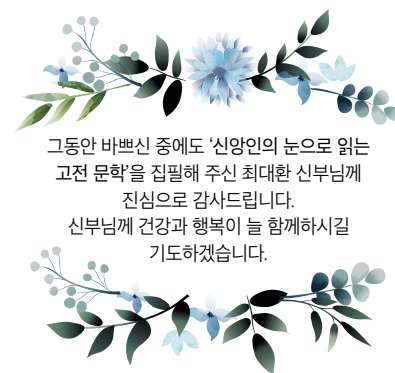
레비나스를 통해 도스토예프스키를 읽는 것은 사유의 모험이자, 우리 시대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상적 대안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사상이 얼마나 우리시대에도 현재적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갖는 책임은] 그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전체성과 무한』의 근본 주제 중 하나는 상호주관적 관계가 비-대칭적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상호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내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반응은 그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타인에게 예속(sujétion)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주체’(sujet)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탱하는(supporte) 자입니다. 당신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문구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이 앞에서 모두에 대해 죄가 있고,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죄가 많다.’ 이는 실제로 나의

것이 이런저런 죄책 때문이 아니며, 혹은 내가 범했을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하고, 다른 이들 안의 모든 것에 응답하고, 심지어 그들의 책임에까지 응답하는 총체적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는 언제나 나 다른 모든 이보다 책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략...)

왜냐하면 나는 타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타인을 지탱하고 타인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인간 주체, 완전히 예속됨과 동시에 나의 먼저 된 자임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나의 책임은 양도 될 수 없으며,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책임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간 자아의 동일성 자체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의식 안에서 주권적인 자아의 이러한 정립 내지 탈정립에서, 정확하게는 타인에 대한 책임인 탈정립에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지워지는 것, 인간적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담은 유일무이한 것에 대한 최상의 존엄입니다. 나 자신은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며, 그저 내가 책임을 지는 바로 그만틈만 나 자신일 뿐입니다, 나는 모두를 대신할 수 없지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체라는 양도 불가능한 나의 동일성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정확히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 / 필립 네모, 『윤리와 무한』, 김동규 옮김, 도서출판 100, 2020, 112-116쪽.)

※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귀한 지면 허락해 주셨던
<가톨릭 직장인>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5년에서 10년 주기로 일어나는 행사이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집권여당의 이름이 바뀔 뿐, 소위 ‘그들만의 스토브리그’에서 벌어지는 이슈는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다르다’가 ‘틀리다’라는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구도에서 세대, 성별구도로 나뉘고, 비슷한 외양적 조건을 향유하는 사람들에서도 거주지, 직장, 학력, 경제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또다시 입장 차이가 생겨나서 그 옛날 황희 정승처럼 ‘왼쪽에 있는 네 말도 맞고, 오른쪽에 있는 네 말도 일리가 있다’는 양시론(兩是論)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상황이 이렇 정도니,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양비론(兩非論)을 주장하면 양시론자보다도 더 못한 회색분자로 찍혀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이 시점에서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외로운 늑대처럼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신념을 이루기 위해 나만의 길을 가는 독고다이(とっこうたい)일까? 아니면 주변의 모든 이를 연민과 공감을 극대화하여 이해하려는 박애주의자(philanthropist)의 길을 걸어가면 될까?

잘 나가던 광고기획자이자 남성우월주의자 닉은 경쟁사 여직원 달시에게 승진의 기회를 빼앗긴다. 소비의 거대한 축인 여성을 설득하고자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심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성용 제품을 착용하고 얼굴에 발라도 보지만 복장도착자 내지는 LGBT(편집자주: 성소수자 중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통합하여 부르는 단어다.)라는 오해만 살 뿐이다.

그것도 딸에게. 스타킹을 벗으려 애쓰다가 욕조에 넘어진 순간 헤어드라이어에 감전이 되어 정신을 잃은 닉은 다음 날 아침 회사 출근길부터 엄청난 환청에 시달리게 된다. <왓 위민 원트, 2000>는 여성들의 속마음을 듣게 된 닉이 이 능력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겪는 내적 갈등을 여성감독의 시각에서 그려낸다. 복잡다단한 여심을 적절히 활용하게 된 닉은 승승장구하지만 회사에서는 닉 대신 달시를 해고하기로 결정한다. 닉은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버렸는데 양심의 가책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감(共感, sympathy)’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말한다. ‘감정이입’에서 시작된 자연과 예술작품에 대한 태도에서 생명체가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소로 확장되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verstehen)라는 개념의 이타적인 도덕적 성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연민(憐愍,))’은 ‘동정(同情)’과도 유사한데, 인간 사이의 동류 의식으로서 감정이입이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반해, 동정은 정신적이며 지적인 특징을 가진다. 영화에서 닉이 체득하게 되었던 여성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발휘하는 초반의 장면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감이나 동정, 연민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능력을 이용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만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된다는 후반부 설정이야말로 ‘인간’을 느끼고, 중국에는 이해한다는 인간애의 실천이라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영화제목은 왓 위민 원트가 아닌 왓 피플 원트로 바뀌도 무방하다.



왓 위민 원트
What Women Want, 2000
멜로/로맨스, 코미디 | 미국
1123분

1605년 11월 5일 영국의 국회의사당 지하에 화약을 설치했던 가이 포크스는 당국의 가톨릭 탄압에 저항한 혁명가이자 무정부주의자라는 현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근 미래의 영국은 작가 H.G. 웰즈의 소설 '1984년'처럼 빅 브라더가 장악한 획일화되고 통제된 감시사회가 되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없고, 삶은 체제가 정한 그대로 흘러가며, 반항하면 정신집중캠프라는 곳에 강제입소된 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

<브이 포 벤데타, 2005>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묘한 가면을 쓰고 철저히 익명화된 개개인들이 V의 지휘 아래 하나로 뭉쳐 체제전복을 꾀한다는 영화이다. 역사와 다른 점은 폭탄을 가득 실은 기차에 의해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에 맞춰 나폴레옹의 침략에 맞선 러시아군의 승리처럼 웨스트민스터궁이 폭파되고 화염에 쌓인다는 점이다. 국회의사당 폭파, 정부 지휘자의 암살 등의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개인과 체제 사이에서 구성원이 자유와 순응의 어딘가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했던 상황을 우리는 지난 2년간 COVID-19 사태에서 목도해왔다. 체제 유지가 아닌 사회 공공안녕을 위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대명제 아래에서 개개인의 특정한 사연은 무시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자위해본다. 어쨌든 벤데타 가면은 무정부주의 해커 그룹인 Anonymous의 상징이 되었다. 의도가 좋기에 나는 그들을 응원한다.

분리 혹은 격리를 뜻하는 단어인 '아파트헤이트(Apartheid)'는 유럽과 북미가 장기간 겪어야 했던 인종차별을 짧게 거치게 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반대급부인 저항과 투쟁의 상징으로도 해석된다. 일찍 천애고아가 된 영국계 백인 소년 P.K.는 농장을 떠나 독일계 백인들이 있던 기숙학교로 들어가면서 많은 고초를 겪는다. 이후 영국계 학교에 입학한 그는 인생의 멘토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중 원주민 흑인에게 권투를 배우면서 링 위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주어진 조건(국적,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미움을 사는 현실에 분노하게 된다.

<파워 오브 원, 1992>은 느낌과 생각이 행동으로 내재화된 백인 청년이 인종차별 철폐의 사회적 운동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폭포도 결국 한 방울의 물로 시작되며, 변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가능하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힘이라는 극중 대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오래된 금언은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아우른다.

변화는 처음에는 머리로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변화와 혁신은 구성원 모두의 나직하지만 강건한 동조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알을 깨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고, 나는 지금처럼 타인에 공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울질하면서 가슴에서 시작된 혁명도 조용히 꿈꿔볼 것이다. 외로운 늑대와 박애주의자는 공존이 가능한 성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금이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



브이 포 벤데타
V For Vendetta, 2005
액션, 드라마, SF, 스릴러 I
미국, 독일 I 132분



파워 오브 원
The Power Of One, 1992
드라마 I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I 123분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_ 7월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 성 요아킴(Joachim, 1세기경)과 성녀 안나(Anna, 1세기경)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 위경(Apocrypha)으로 일컫는 170-180년경에 쓰인 「야고보 원복음서」에 성모 마리아 부모의 이름이 언급돼 있다. 이 복음서에는 성모 마리아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요아킴은 가정이 윤택하며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안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다.

요아킴과 안나의 일화는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불러 넣었다. 그들의 일화 가운데 가장 많이 그려지는 것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황금 문 앞에서 만나는 장면, 안나가 마리아를 낳는 장면 그리고 안나가 어린 성모 마리아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 등이다.

황금 문: 요아킴과 안나의 만남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요아킴과 안나는 오직 하느님께 자녀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까지 했다. 어느 날 요아킴은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내쫓겼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해 하느님의 백성을 늘리지 못한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했고, 집에 가서 가족들의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 부끄러웠던 요아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양치기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얼마 후,



조토, <성녀 안나의 수태고지>, 1303-04년, 프레스코, 스크로베니 경당, 파도바

요아킴에게 천사가 나타나 “네 기도와 제물은 하느님께 전해졌다. 하느님은 네가 당한 모욕을 다 지켜보셨다. 사라가 아흔이 넘어서도 임신할 수 있었듯이 네 아내 안나도 마리아라 불리게 될 아이를 잉태하여 주님께 봉헌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예루살렘의 황금 문에 가서 아내 안나를 만나 서로 기쁨의 재회를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안나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몹시 걱정했다.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경당에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7년경~1337)는 예수와 성모의 생애를 프레스코화로 장식한

연작 중 <성녀 안나의 수태고지>에서 안나가 집에 오지 않는 남편을 몹시 걱정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 화가는 그림 주제를 마치 연극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처럼 한쪽 벽을 제거하고 실내의 상황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조토는 투시법을 이용한 작고 소박한 방에 천장이나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와 오른쪽 함이나 생활용품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안나는 근심어린 얼굴로 창 쪽의 천사를 바라보고 있다. 문밖에는 실을 잣는 여종도 보인다.

화가는 안나를 이미 나이 든 여자로 텅 빈 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외롭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나는 많은 시간을 남편의 부재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한다. 이때 천사가 안나에게 나타나, 그녀의 남편 요아킴은 살아 있으며,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중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또한 천사는 “너와 너의 남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너에게 여자아이를 주실 것이니 아이의 이름을 마리아라 하여라. 너희들이 서원한 대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안나에게 예루살렘의 황금 문 앞으로 가면 남편 요아킴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나는 일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황금 문으로 가 요아킴을 만나 서로 포옹하게 된다. 서로 포옹하는 순간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를 잉태하게 된다.

베네치아에서 활동한 바르톨로메오 비바리니(Bartolomeo Vivarini, 1430년 경-1499년경)가 제작한 산타 마리아 포르모자 성당에 세 폭 제단화에서처럼 천사가 두 사람에게 알려준 대로 예루살렘의 황금 문으로 가서 서로 껴안는다. 화가는 두 사람을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두 사람을 결합하고 있다.



바르톨로메오 비바리니, <예루살렘의 문에서 성녀 안나와 성 요아킴의 만남>(일부), 1473년, 패널에 유채, 산타 마리아 포르모자 성당, 베네치아

기쁨이 가득한 방: 마리아를 낳은 안나

당시 많은 화가는 황금 문에서 요아킴과 안나가 포옹하는 장면을 독립된 주제로 자주 그리곤 했다. 그러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Domenico Ghirlandaio, 1449-1494)의 작품에서는 마리아의 탄생 장면 속에 안나와 요아킴의 포옹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 기를란다요는 1485-90년쯤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 있는 “토르나부오니 경당”에 동정 마리아와 요한 세례자의 일생을 그린다. 이 작품은 그 가운데 안나가 마리아를 낳은 장면이다. 안나가 마리아를 막 해산한 후의 주제이지만, 그림 왼쪽 계단의 맨 위

쪽에서 안나와 요아킴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있다. 장차 구세주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탄생이 성령의 은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방 안 전체 구성은 안나와 요아킴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화가가 살았던 당시 피렌체의 상류층 가정을 배경으로 한다. 화가는 ‘마리아의 탄생’을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로 표현함으로써 신자들에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친숙하게 다가서도록 인도한다.

화가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통해 당시 피렌체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생활을 흥미롭게 반영하고 있다. 왼쪽에 보이는 우아하게 잘 차려입은 한 그룹의 여자들은 산후의 안나를 보러 온 것으로 갓 태어난 마리아를 향한다. 맨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배 위에 모은 여자는 이 그림을 주문한 루도비카 토르나부오니의 딸이다. 당시 화가들은 성경이나 신화를 주제로 다룰 때, 주문자나 그의 가족이나 친척의 초상을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그려 넣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를란다요는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그의 후원자였던 토르나부오니처럼 부유한 피렌체 시민들 사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처럼 나타내고 있다.

넓은 방은 화려한 기둥 장식과 금장식으로 상감된 가구로 매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구 위에 고전적인 부조 형식으로 그려진 춤 추고 연주하는 아기 천사들은 실재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있다. 아기 천사들 아래쪽 장식 조각에는 라틴어로 “영원 동정하신 어머니, 당신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쁨의 원천이시니”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침대 위에는 막 해산 후 몸조리하는 안나가 다른 인물보다 비교적 크게 표현돼 있고, 그녀는 딸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다. 침대 앞에 막 태어난 마리아를 안은 산파와 목욕물을 따르는 산파가 보인다.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7달 만에 태어났고, 태어난 시간도 제7경(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1시)이란 기록도 전한다. 숫자 ‘7’은 ‘4’와 ‘3’이 합하여 이루어져 매우 성스러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4’는 세상을 의미하고 ‘3’은 하느님을 의미한다. 장차 마리아는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마리아의 탄생>, 1491년,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피렌체

세상의 여인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사람이란 것을 예고한다.

조토의 작품에서도 장차 안나가 천사의 예고로 마리아를 낳아, 성장한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낳으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안나의 집 위에 삼각형의 팀파눔에서 볼 수 있는 조개껍데기 중앙에 예수가 자리하고, 그것을 두 명의 천사가 떠받들고 있는 그림이 부조 조각처럼 장식돼 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조개껍데기는 여인의 자궁과 탄생을 의미하며, 중세 그리스도교적 전설에서 성 야고보 성인과 연루되어 종교적으로는 정신적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마리아의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한 조개껍데기에 예수의 모습은 여인으로 성장한 마리아의 태중에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보석처럼 귀한 분이 오심을 의미한다.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_ 8월

성녀 모니카와 성 아우구스티노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어머니의 수호성인 성녀 모니카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 354~430)의 어머니로 더 잘 알려진 성녀 모니카(Monica, 332-387)는 331년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조그만 마을 타가스테(Tagaste)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모니카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에 나온다. 아들의 글에 따르면, 모니카는 그리스도교도 어머니의 귀감이 될 만한 여인이었다.

모니카는 22살에 부모님이 골라준 이교도인 남편 파트리시오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다 난폭하고 방탕한 기질에 상당히 권위적이기까지 했으며, 더욱이 모니카의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성격에 경건한 책보다는 독한 술을 더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로 부도덕하고 난폭한 행실의 남편과 음주벽이 심한 시어머니를 한결같은 정성으로 모셨다. 그녀의 오랜 인내와 헌신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회개

시키고 신앙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다음 해에 남편을 잃게 된다.

이후 모니카는 별 어려움 없이 2남 1녀의 자녀 중 둘을 개종시켰지만, 그녀의 장남인 아들 아우구스티노 때문에 언제나 노심초사였다. 성실한 다른 두 자녀와는 달리 아우구스티노는 세례를 받기는 했으나 그리스도교 신자에 어울리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노는 30대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마니교와 이교 철학에 심취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거부했다. 항상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모니카에게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토록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으니, 그는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다고 한다. 암브로시오의 말에 용기를 얻은 성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한편, 아우구스티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베노초 고촐리, <성녀 모니카>, 1464-65, 산지미냐노,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

교사 생활을 하던 중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명예나 재산, 결혼 등의 세속적 욕망으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던 중 그의 귀에 “집어서 읽어라”라는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오고, 그가 성경을 펼친 곳이 로마서였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마시다.”(로마 13, 13) 그 때부터 아우구스티노는 사제로, 주교로 성직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설교하며 지속해서 연구하며 종교적 과업을 수행하는 모범적 삶을 살았다. 아우구스티노의 회개와 어머니 모니카의 기나긴 아들들을 위한 기도와 희생은 아우구스티노를 모든 이단과 그릇된 세

속적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화가들은 이러한 어머니 모니카와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관계를 주제로 많이 그렸으며, 모니카의 모습은 베네치아 화가의 작품처럼, 아들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있는 어머니로 자주 표현된다. 천상과 지상으로 나누어진 제단화에서 천상에는 성인들이 금빛 찬란한 천상의 영광 속에 줄지어 선 채, 성부를 향하고 있다. 전통적인 흰 턱수염이 있는 노인의 모습을 한 성부는 양팔을 벌려 자비롭게 성인들을 환대하고 있다. 지상에는 성모자를 중심으로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노가 서 있다. 아우구스티노는 주교복과 지팡이를 들고 교회의 학자임을 상징하는 책을 들고 있다. 모니카의 상징은 십자가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검은 수도복으로 그녀는 검은 수도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는 아들이 저술한 수도 규칙서를 들고 있다.

모니카 성녀는 아내요, 며느리요, 어머니로 서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눈물의 기도로써 주님께 의지하며 인내했고, 아들 아우구스티노를 은총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반해주었다. 그녀는 평소 죽어서 남편과 함께 묻히고자 했으나 “내 몸뚱이야 어디다 묻든지 그 일로 조금도 걱정들 말거라. 한 가지만

너희한테 부탁한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다오”(“고백록” 9권 11장)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주교학자 성 아우구스티노

그림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일반적으로 연구에 몰두하는 주교의 모습으로 서재를 배경으로 책을 든 모습 혹은 그가 말하는 ‘신의 국가’로 도시의 모형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5세기 그림에는 아우구스티노의 주변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조개껍데기가 그려진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화가들에게 가장 흥미를 유발한 아우구스티노의 환시 내용으로, 그가 해변을 걷다가 한 어린아이를 만나는 장면이다. 조개껍데기로 바닷가의 물을 퍼내고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 아우구스티노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어린아이는 그를 향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 하는 당신보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7세기 이후에는 아우구스티노의 가슴이 불타고 있거나 가슴에 화살이 관통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화가들은 그의 종교적 열정을 심장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거나, 삼위일체를 명상하는 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화살이 심장을 관



작가 미상의 베네치아 화가, <성모자와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녀 모니카>, 16세기, 오그니산티, 펠트레

통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아우구스티노가 독립적으로 그려진 모습도 많지만, 교회의 다른 세 명의 학자들(성 예로니모, 성 그레고리오, 성 암브로시오)과 함께 서 있거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때로 그가 가죽 벨트가 달린 검정 겹옷을 입고 규범집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규범집은 후에 공동체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규칙으로 채택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 아우구스티노를 미하엘 파허(Michael Pacher, 1435-1498)는 그를 어린아리와 함께 등장시

켰다. 독일의 후기 고딕 양식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하엘 파허가 제작한 이 그림은 브레사노비 근처에 위치한 노바셀라의 아우구스티노 대수도원을 위해 제작한 장엄한 제단화이다.

서방 가톨릭교회의 4대 교부학자를 그린 제단화에는 성 아우구스티노와 다른 세 명의 교부학자 성 예로니모, 성 그레고리오, 성 암브로시오가 나란히 그려있다. 파허는 독일 화가로는 드물게 당대 이탈리아 북부 르네상스 미술의 실험적인 원근법 사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좁은 벽감에 각각의 성인은 안정적인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원근법을 통해 좁은 공간 속에 깊이 있게 묘사되었다. 왼쪽부터 차례로 성 예로니모, 성 아우구스티노, 성 그레고리오, 성 암브로시오가 재현돼 있다. 예로니모 성인은 사자 발에서 가시를 빼주었다는 일화로 묘사돼 있으며, 그레고리오 성인은 연옥에 있는 트라야누스 황제의 영혼을 구제해주고 있다. 그레고리오 성인이 죽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응답 해주신 체험을 했다고 한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요람에 누운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함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암브로시오가 아기였을 때 꿀벌들이 날아와 입술에 단물을 묻혀줬고 성인의 아버지는 이걸 보고 아들이 장

래 유능한 연설가가 될 것을 알았다고 한다.

두 번째 주교 복장을 한 아우구스티노는 왼손을 들어 삼위일체의 숫자 3을 표시하고 있다. 그가 체험한 환시를 나타낸 것으로, 그의 곁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해변에서 만난 아이를 통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었다. 왼쪽에 놓인 책은 아우구스티노의 학자로서의 상징물로 그와 책 사이에 날고 있는 비둘기는 성령으로 성인의 저서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교회학자로서 『고백록』, 『신국론』 등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많은 신학 저서를 남겼다. ●



필립 드 상파뉴, <성 아우구스티노>, 1645-50, 로스엔젤레스 뮤지움



미하엘 파허, <네 명의 교부학자>, 1483경, 뮌헨 알테피나코텍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씨가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 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



2022년 7월 17일 (일)
명동대성당, 들머리, 회관 앞마당

제27회

농민 동지 주요



▲ 우리농 법민 홈페이지

기념미사

12:00~13:00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사제단 공동집전

전시문화마당

09:00~16:00

슬기로운 우리농운동
토종종자 씨앗나눔
기후위기와 농업 퍼포먼스
달그樂 콘서트
농민 응원 플래그

나눔마당

09:00~16:00

생명농산물 직거래장터
'명동보름장'

*우리농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우리농
생활용품들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포장용품
(쇼빙백, 리본, 상자, 에어캡 등)을
가져오시면 생명농산물을 드립니다.
*직거래장터 3 농가에서 생명농산물을
구입하시면 파우치를 드립니다.

명동은 푸른움이 돌아왔다. 창세기 (11)

주최 |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문의 | 02-2068-3766)



ichthus \ˈɪkθəs\

variants: or less commonly ichthys \ -thə's \

plural -es

: a representation of a fish used in ancient times as a pagan fertility talisman or amulet or as a Christian symbol for the Greek word ichthys interpreted as an acrostic in which the Greek letters are the initials of the words I êsous Ch ristos th eou hy ios s ôtêr meaning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